

중부해경청, 찾아가는 선박교통관제사 진로 교육

-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, 6일 인천해사고 찾아 직업 설계 교육 -

중부지방해양경찰청(청장 김병로)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(경인연안VTS)는 11월 6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20분까지 인천해사고등학교*에서 1학년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선박교통관제사 진로 교육'을 했다고 7일 밝혔다.

* 인천해사고등학교 : 수도권 유일 해양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서 항해 및 기관으로 나뉘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

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 2명이 진행한 진로 교육은 △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 업무 △해상교통관제사 임무 소개 △해상교통관제사 진로 지도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.

이날 교육에서는 현직 해상교통관제사가 직업 선택 이유,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솔직하게 학생들에게 들려주고, 선박교통관제분야 고교학점제* 과정 선택을 고민하는 해사 계열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.

* 고교학점제 : 고등학생들이 본인의 적성 및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졸업 학점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

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백승열 센터장은 “올해 5월에 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선박교통관제사 진로 소개를 진행했는데, 학생

들의 호응이 커서 이번에 두 번째 진로 교육을 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우수한 선박교통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 진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다”고 설명했다.

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경찰 소속으로 전국 19개 해상교통관제센터(VTS : Vessel Traffic Service)에서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5백여명(경찰관 및 일반직)이 근무하고 있다.

한편, 우리나라에서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면,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고 승선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, 교육기관(고교 및 대학)에서 선박교통관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.

담당부서	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	센터장	경정	백승열 (032-728-8156)
		팀장	7급	김민 (032-728-8256)
		담당	경위	김영하 (032-728-8456)
홍보부서	기획운영과 홍보계	보도담당	경위	박세은 (032-728-8212)